

인간의 미래, 콘텐츠산업의 미래

리처드 플로리다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의 책 '신창조계급'에는 두 명의 시간여행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명은 1900년대의 거리에서 1950년대 거리로 이동을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1950년대에서 2000년의 어느 지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누가 더 큰 변화를 겪을까요?

1900년대 마차를 타고 다녔던 사람은 자동차, 트럭, 버스가 쏘살같은 속도로 다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TV, 세탁기 등 편리한 가전제품들을 보고는 신기해 할 것입니다. 1950년대에서 2000년으로 온 사람은 어떨까요. 컴퓨터와 인터넷, 휴대전화 같은 첨단기술에 놀라기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기기들에 금방 적응할 것입니다.

플로리다 교수는 두 명 중 더 큰 혼란에 빠질 사람은 두 번째라고 결론짓습니다. 똑같은 50년의 시간이지만 변화의 질과 폭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 여행자가 주로 기술의 변화를 겪었다면, 두 번째 시간 여행자는 생활양식과 세계관, 문화의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 교수는 근본적인 변화는 물질적 변화가 아니라 생활양식과 가치관, 트렌드의 변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우리 중 한 명이 50년 후 미래 세상으로 간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떤 충격에 빠지게 될까요. 아마도 50년 후 세상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세상일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이 언제 어디서든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일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됐든, 그 충격은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최첨단이어도 인간은 금방 적응할 수 있으니까요. 플로리다 교수의 결론에 따르면, 미래 충격의 본질은 가치관과 트렌드의 변화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어디까지 발전하고, 얼마나 일자리를 뺏을 것인지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문화가 나타날 것인지 주목하고 예측해야 합니다. 콘텐츠산업의 미래는 그 너머에 있을 테니까요 ❶